

기업 세계화 반대 저항

CHALLENGING CORPORATE GLOBALIZATION

- 2002년 4월22일 이후 케탈라주 플라치마다 시민들은 지역 코카콜라 보틀링 공장 문 밖에서 매일 24시간 계속 시위를 하고 있다. 그 마을의 자문 위원회가 코카콜라 보틀링 작업 면허를 허가해 주지 않았고, 인도 전국에서 가장 큰 시설중의 하나인 공장을 계속 작업 중지, 그리고 영원히 폐쇄하도록 투쟁은 계속된다.
- 바라나시 도시의 메디간즈 지역 주민들 역시 코카콜라에 반대하는 투쟁을 이끌고 있고, 2004년 11월 코카콜라 반대시위는 1500여명이 참여하였다. 코카콜라의 시설을 보호하는 500여명의 무장 경찰이 공장 앞에서 평화롭게 시위하던 주민들을 잔인하게 폭행한 바 있다.
- 라자스탄주의 수도 자이푸르시 근처에 있는 칼라데라 코카콜라 보틀링 시설에서는 가라앉는 지하 수면으로 인하여 50여 마을들이 물 부족을 겪게 되었다. 주민들 2000여명은 2004년 8월 코카콜라를 반대하는 시위행진을 하였다.
- 마하라시트라주의 테인구역 쿠두스 마을에서는 코카콜라의 보틀링 사업으로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은 물을 찾아 멀리까지 다녀야하게 되었다. 코카콜라는 강부터 공장시설까지 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파이프 라인(수송관)을 건설하였고 이를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지역 경찰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 타밀나두주 간가이콘단지에서도 계획 허가된 코카콜라 시설을 반대하는 운동이 강력하게 부상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물의 부족이 코카콜라 사업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기근과 오염을 초래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JOIN US

인권, 환경 정의, 그리고 노동권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독특하고 국제적인 풀뿌리 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 천연 자연에 대한 주민의 권리
- 독물과 폭력없이 살아갈 주민의 권리
- 소외당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짐 없이 살아갈 권리
- 노동자들이 뜻대로 조직할 수 있는 권리
- 물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기

www.IndiaResource.org

info@IndiaResource.org

코카-콜라



**삶과
생계와
지역 사회를 파괴한다**

생각도 할 수 없고, 마실 수도 없다!

www.IndiaResource.org

플뿌리 투쟁 ...

수천명의 인도 시민들은 코카콜라 회사 사업에 대하여 항의 시위를 계속 하고있다. 주로 여성들과 원주민들(Adivasis), 낮은 카스트 계급인 달릿 (Dalit), 그리고 농장 일꾼들과 농부들이 함께 앞서서 이끄는 인도의 플뿌리 운동은 코카콜라가 인도 내외 세계 곳곳에서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묻고있다. 이 캠페인은 점점 커지고 있고 정의 추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싸움에 승리하고 있다.

... 범죄에 저항하며

인도의 코카콜라 회사의 병입 (이른바 보틀링) 사업에서는 악습의 경력이 여러 차례 분명히 나타났다.

코카콜라는 분명히 유죄이다:

- 인도 곳곳에 물 부족 상태를 일으키고 있다.
- 보틀링 공장 주변의 물과 흙을 오염시키고 있다.
- 유독 폐기물을 “비료”로 농부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 유럽 연합 (EU) 규제치의 30배가 넘는 농약이 섞여 들어간 음료수를 인도에서 팔고 있다.

전인류를 위하여

코카콜라 보틀링 공장 주변의 지역시민들은 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 코카콜라의 행포에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대부분은 원주민, 낮은 카스



트 계급, 저소득, 그리고 농업계 일당 일꾼등 인도 사회에서도 가장 소외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물과 토지는 농사에 중심이고 70% 이상의 인도인들은 농사와 관련된 일로 생계를 꾸려 나간다. 코카콜라가 일으킨 물의 부족과 흙의 오염은 바로 흉작을 불러왔고 수천명이 생계수단을 잃게 만든 원인이다. 인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빈곤선 이하이고 농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사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코카콜라 보틀링 사업에 의해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코카콜라 제품을 살 수도 없이 가난하다.

코카콜라의 무분별한 지하수 오염은 매우 심각한 장기적인 문제다.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은 극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은 앞으로 코카콜라 덕분

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자라게 되었다. 아니면 집까지 수도관을 설치하여 깨끗한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러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코카콜라는 또한 유독 폐기물을 주변 농부들에게 비료로 분배하여 공중 보건의 악몽 상태를 만들어 냈다. 유독 폐기물 노출의 장기적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최악의 사태가 아직 앞으로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코카콜라는 반(反)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코카콜라에 저항하는 강력한 세력이 대응하기 시작했다.

콜롬비아: 킬러 콜라!

코카콜라의 중남미 최대 보틀링 시설 파남코는 우익 민병대를 동원하여 노조 지도자들을 협박하고 살해한 혐의로 현재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시날트레이날 노조 지도자들과 조직 위원들은 코카콜라 보틀링 자회사의 공범, 콜롬비아의 민병대들한테 지속적으로 잔혹한 폭력을 당했다.

1989년 이후 코카콜라 보틀링공장의 노조 지도자들중 8명이 민병대에게 살해당했고, 공장 안에서 습격당한 이도 있다. 노동자들도 폭력, 협박, 납치, 고문, 불법 감금등 회사 경영진과 공동 협력하는 민병대에게 계속 당한 바를 신고한 바 있다.

www.killercoke.org